

바다에 운명 맡긴 난민, 작품 속으로

멕시코 사는 벨기에 작가 알리스
인도 아버지 둔 영국작가 다우드
국경 문제 다룬 영상·회화 전시
올해 광주비엔날레에도 참여
남북한 가르는 DMZ 작업도 검토
전지현 기자 입력 : 2018.09.12



프란시스 알리스 `지브롤터 항해일지`

아프리카와 중동 분쟁 지역 난민들은 거친 바다에 운명을 맡긴다. 삶과 죽음을 가르는 국경을 넘기 위해서다. 프란시스 알리스(59)와 세자드 다우드(44)는 그 아슬아슬한 경계에 천착한 미술 작품으로 묵직한 메시지를 던진다.

두 작가가 직접 이주를 체험하면서 살았기에 깊이 있는 연구가 가능했다. 알리스는 벨기에에서 태어났지만 1980년대 중반 멕시코 대지진 복구를 위한 국제구호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멕시코시티로 옮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우드는 영국에서 파키스탄 어머니와 인도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아일랜드인 새 어머니 아래 자랐다.

알리스는 서울 아트선재센터 개인전 `지브롤터 항해일지` (11월 4일까지)에서 국경과 경계의 개념과 제도적 모순에 대한 생각을 담은 영상, 드로잉, 설치작품을 펼쳤다. 다우드 역시 인근 갤러리 바라캇서울 개인전 `리바이어던 : 흑점과 고래` (11월 4일까지)를 통해 바닷길에서 사망한 난민들의 유품을 수공예 천에 그린 작품 등을 내걸었다.

먼저 알리스가 주목한 지브롤터 해협은 모로코와 스페인 타리파 사이에 있다. 아프리카 난민들은 이 바닷길 13km만 가면 유럽에 도달할 수 있다. 2008년 영상 작품인 `지브롤터 항해일지`에서는 신발에 돛을 단 배 모형을 든 스페인과 모로코 아이들이 각자의 해안가에서 출발해 수평선에서 만나려는 시도를 촬영했다. 물론 불가능한 일이지만 거친 파도를 헤치며 걸어가려는 아이들을 통해 희망을 전한다. 2006년 영상 작품 `다리`는 쿠바 이민자들과 미국 이민당국과의 갈등에서 출발했다. 쿠바 아바나와 미국 남단섬 키웨스트 어선들이 양쪽 해안에서 각자 출발해 마치 해상에 떠 있는 다리를 만드는 듯한 광경을 연출한 다큐멘터리 영상이다. 아바나와 키웨스트 어민들이 다리를 만드는 장면은 지정학적 긴장감과 해결되지 않은 양국의 갈등을 상쇄하려는 은유적인 시도다.



세자드 다우드 `섬`

전시장에서 만난 프란시스는 "중앙아메리카 사람들이 미국으로 가는 중간지대인 멕시코에 살면서 경계에 흥미를 갖게 됐다. 20년간 멕시코에 살다가 2006년 유럽에 갔을 때 마치 내가 이민자처럼 느껴졌다. 이주와 난민은 지금도 계속되는 문제지만 미국이나 유럽연합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남북한을 가르는 비무장지대(DMZ) 작업도 검토하고 있다. 제주 예멘 난민 등 이민자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고 묻자 "철새처럼 식량과 자원이 몰려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인간의 동물적 본능이다. 이민자들의 출신 지역을 지원해 스스로 경제발전을 이루게 하는 게 답"이라고 말했다.

다우드는 삼국유사에 실린 일월 성신 설화 `연오랑 세오녀`를 난민으로 해석한 회화 `섬`을 발표했다. 해안가 바위에 실려 건너간 일본에서 왕과 왕비가 된 고대 신라 어부 연오랑과 세오녀 이야기다. 작가는 연오랑이 놓고 간 신발을 잃어버린 난민의 소지품으로 여겼다. 신라에서 해와 달의 정기를 되찾기 위해 세오녀가 짠 비단으로 제사를 지내는 이야기를 천 위에 회화로 재해석했다. 오렌지색 바다 위에 배와 고래 형상을 풀어놓은 추상 작품이다.

전시장에서 만난 다우드는 "리바이어던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 곳곳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담으려고 노력 중이다. 박소현 바라캇서울 큐레이터에게 연오랑 세오녀 설화를 들었을 때 난민의 신발을 그린 내 작품이 떠올랐다. 바다 배경도 난민의 이동 경로와 일맥상통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시에도 지중해에 수몰된 난민들의 옷과 신발, 지갑 등을 천에 그린 작품들을 걸었다. 바다에서 사망한 난민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기관 `라바노프`와 베네치아 수공예 천 제작사 `포르투니`와 협업을 통해서다. 다우드는 "딸 셋이 있는데 10년이 지난 후 `작품을 잘 팔았다`고 말하기보다는 `세상의 문제를 고민했다`고 말하고 싶다. 난민을 역사적 관점에서 본 글로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두 작가는 오는 11월 11일까지 펼쳐지는 올해 광주비엔날레에서도 작품을 선보인다.

[전지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